

‘빙속 올림픽 동메달’ 김민석 대표팀 훈련 중 음주운전사고

선수촌 인근 음주 후 동료 태우고 입촌하다 사고
‘베이징 銀’ 정재원도 동승…중장계 불가피할 듯



김민석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23·성남시청)이 음주운전사고를 났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3일 “김민석이 22일 밤 대표팀 동료 3명과 함께 선수촌 인근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개인 차량에 동료들을 태우고 입촌하다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김민석 등 선수들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고, 이를 전달받은 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대표팀의 훈련을 중단시킨 뒤 전원 퇴촌시켰다.

김민석은 2018년 평창대회와 올해 베이징대회까지 동계올림픽에서만 2회 연속 남자 1500m 동메달을 차지한 간판스타다. 베이징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21·의정부시청)도 김민석과 동승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팀 훈련 기간에 음주사고를 낸 만큼 중장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선수들에게서 경위서를 받은 연맹은 27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징계권한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스포츠계는 음주운전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 남자프로농구 서울 삼성 가드 천기범(28)이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허위진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천기범은 KBL의 징계를 받고 은퇴를 선언했다가 돌연 일본 팀과 계약해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5)는 4월 29일 KBO가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월 소속구단(키움 히어로즈)과 체결한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결정은 많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남자프로농구 원주 DB 배강률(30)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KBL의 5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역시 은퇴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져 또 한번 지탄을 받게 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복권은 성인이 되면
소액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1910

만 세 이상 만원 이하

복권 구입시
유 의 사 함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1025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2년 07월 23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8	9	20	25	29	33	7
1등 총 당첨금						2,413,376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인 기금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동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4	6,118,853,344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1등 보너스 일치	69	59,119,35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671	1,527,23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34,665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2,258,426	5,000 원

*상위 당첨금은 1등당 당첨금에 기초합니다. (4등 공제 전)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 의 사 함 · 복권은 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권은 소액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당첨금인원: 080-850-0501 www.dhlotttery.co.kr

KLPGA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8m 우승 버디…조아연, 초대 챔프 등극

〈17번홀〉

두달만에 시즌 2승…통산 4승
박민지 이어 시즌 2번째 다승자
전반기 모두 출전한 ‘개근 골퍼’
“하반기에 휴식없이 우승 도전”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최종 순위 (파72)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조아연	12언더파 204타	67-69-68
공동2위	하민송	10언더파 206타	72-67-67
	황정미		71-67-68
공동4위	유해린	9언더파 207타	70-69-68
	최가람		66-72-69
	박지영		68-70-69
	한진선		68-68-71
	지한솔		69-68-70
	이제영		63-71-73

※ 이기영 8언더파 공동 10위, 임희정 율이나 7언더파 공동 15위

2019년 신인왕 출신 조아연(22)이 시즌 2승 및 통산 4승에 입맞춤했다. ‘무명 돌풍’을 끌었던 이제영(21)은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돌아섰다.

조아연이 24일 경기 이천시 H1 클럽 마운틴·레이크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22시즌 상반기 마지막 대회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총상금 10억 원) 초대 챔프의 영광을 안았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이제영에 2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조아연



조아연(오른쪽)이 24일 경기 이천시 H1 클럽에서 열린 신선타회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에서 초대 챔프에 오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조아연은 이번 우승으로 박민지(3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다승(2승) 영광을 안았다. 사진제공 | KLPGA

은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하민송(26), 황정미(23·이상 10언더파)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억 8000만 원을 획득했다.

2019년 4월 국내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9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2승을 따내며 신인왕에 올랐던 조아연은 2년 8개월 만인 올 5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뒤 두 달여 만에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며 박민지(24·3승)에 이어 시즌 2번째 다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아연은 챔피언즈에서 함께 플레이 한 이제영과 전반기 9개 홀에서 나란히 버

디 3개, 보기 1개를 적어내며 2타 차 간격을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10번(파4) 홀에서 버디를 낚아 11언더파로 이제영을 1타 차로 압박했다. 이제영은 첫 우승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12번~13번(파4) 홀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고, 이를 틈타 1타 앞선 단독 1위로 올라선 조아연은 14번(파3) 홀에서 6m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려 공동 2위 그룹에 2타 차로 달아났다.

16번(파5) 홀에서 2m 파 퍼트를 놓쳐 이미 경기를 끝낸 2위 그룹에 1타 차로 쫓기기도 했지만 17번(파3) 홀에서 짜릿한 8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시즌 2승 및 통산 4승을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장식한 조아연은 “긴장하지 않고 재미있게 플레이했다”면서 “17번 홀에서 버디 퍼트가 홀컵에 빨리 들어갈 때 우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반기 열린 16개 전 대회에 ‘개근’했던 그는 “하반기에도 휴식 없이 모든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2020년 정규투어 데뷔 후 지난해 2부 투어로 내려가는 등 단 한번도 톱10에 든 적이 없었던 이제영은 1·2라운드 이틀 연속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며 돌풍을 끌었지만 3라운드에서 1오버파에 그쳐 합계 9언더파 공동 4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가족영화 ‘미니언즈2’, 스타 총출동 ‘외계+인’을 삼켰다?

한때 예매율 1위 찍으며 흥행세
70년대 레트로 감성…부모들 호평
2030도 40%나…굿즈 수집 등 열풍

7년 만에 돌아온 ‘노란 악동들’이 여름 극장가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애니메이션 ‘미니언즈2’가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키며 류준열·김태리·김우빈 등 스타들이 총출동한 한국영화 ‘외계+인’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미니언즈2’는 세계 최고의 악당을 꿈꾸는 미니보스 ‘그루’와 그를 따라다니는 미니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2015년 7월 개봉해 전국 262만여 관객을 불러 모았던 ‘미니언즈’의 후속작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객은 물론 2030세대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다.

●1위 같은 박스오피스 2위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예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관객을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유니버설픽처스

따르면 20일 개봉한 ‘미니언즈’는 토요일인 23일 하루 25만2707명을 불러 모았다. 같은 날 개봉한 ‘외계+인’의 25만2948명보다 불과 241명 적은 수치다. 이날까지 전국 누적 58만7000여명을 동원하며 66만5000여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낸 ‘외계+인’ 못지않은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23일 ‘외계+인’이 전국 1685개 스크린에서 모두 6951회 관객을 만났고, ‘미니언즈2’는 그보다 적은 1392개 스크린, 6044회 상영횟수를 기록한 점에 비해 ‘미니언즈2’의 기세를 뚜렷하게 확인하게 한다. 앞서 개봉 전날 한때 ‘외계+인’을 꺾고 예매율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개봉일에도 ‘외계+인’보다 불과 1만여 명 적은 14만 명을 모아 기염을 토했다. 극장가는 이 같은 수치상 비교를 통해 진정한 승자는 ‘미니언즈2’라고 분석한다.

다만 이 같은 흥행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27일 ‘한산: 용의 출현’과 8월 3일 ‘비상선언’ 등 한국영화 기대작이 잇따라 개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찌감치 예매를 시작한 ‘한산: 용의 출현’의 경우 이미 10%대인 ‘미니언즈2’의 예매율을 세 배 이상 앞서가고 있다.

●가족 관객부터 MZ세대까지
‘미니언즈2’ 흥행은 ‘폭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힘’ 덕분이라고 극장가는 보고 있다. 실제로 24일 CJ CGV의 예매 관객 분석에 따르면 전체 관객 중 어린이를 동반한 40대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CGV 측은 “감염병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놀이공원이나 여행 대신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극장을 찾는 관객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힘입은 입소문도 영향을 미친다. “70년대에 한정하는 연애편지 같은 영화”라는 카일 발다 감독의 말처럼 ‘미니언즈2’는 디스코 음악부터 나팔바지까지 복고감성을 가득 담아냈다.

20~30대 관객 비율도 이에 못지않아 40%에 이른다. 이들 사이에서는 ‘미니언즈2’ 관련 굿즈 모으기 열풍도 일고 있다. 스페셜 굿즈와 참치, 믹스커피, 소형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젊은 관객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11구간부터 ‘엘로저지’ 빙에고르, ‘투르 드 프랑스’ 사실상 우승

3228.2km ‘76시간33분57초’ 1위
라이벌 포가차르에 1년만의 설욕

요나스 빙에고르(26·덴마크)가 세계 최대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2022’ 폐막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빙에고르는 총 21구간 중 20구간까지 3228.2km의 레이스를 마친 23일(현지시



빙에고르

일)에 8분13초 앞섰다.

우승의 분수령인 20구간 레이스에서

빙에고르는 최대 경쟁자인 포가차르보다 8초 앞선 48분26초의 기록으로 구간 2위를 차지하며 우승을 예약했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21구간에선 전통적으로 20구간까지 경주로 가려진 우승자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기념하는 축하연 성격의 레이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빙에고르는 10구간까지 1위였던 포가차르를 11구간부터 제치며 대회 선두의 상징

인 ‘엘로 저지’를 입은 뒤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빙에고르는 지난해 대회에서 5분20초 차이로 포가차르에 패한 아쉬움을 1년 만에 설욕하게 됐다.

1일부터 약 3주간 펼쳐진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파리 상젤리제까지 3300여km를 달린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시작해 상젤리제에 이르는 115.6km의 21구간 레이스를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